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덕평 주민에 건강검진 이어 '로켓배송'까지 지원

2021. 8. 29.

- **서비스 비권역에 익일배송 개시 "상호 발전 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 **건강검진 서비스, 오염 정화 지원, 농작물 매입 등 전방위 지원**

2021. 8. 29. 서울 — 쿠팡이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쿠팡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를 비롯해 인근 지역 총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100% 직고용한 배송직원 '쿠팡친구'들과 동네 배송에 참여한 지역주민 '쿠팡 플렉서'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익일 이내 가져다 주는 쿠팡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쿠팡은 마장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마장면 일대는 서비스 권역이 아니어서 지역주민들이 로켓배송을 이용하지 못했다. 서비스 비권역 로켓배송에 따른 추가 비용은 쿠팡이 전액 부담한다.

쿠팡은 이번 로켓배송 서비스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덕평리 주민 200여 명에게 건강검진 및 전문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들은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증진센터의 출장건강검진 서비스로 화재에 따른 건강상의 영향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개별 건강 상담도 받았다.

쿠팡은 6월 말부터 두 달여간 주민피해지원세터를 운영하며 접수 받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차 750여 대에 대한 세차비와 정화 작업이 필요한 주택과 학교, 시설물 등 100여 건에 대한 청소비 등을 우선 지급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재 주변 농지의 폐기물과 토양 모두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쿠팡은 주민 지원 차원에서 덕평리의 농작물 매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이외 피해 사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추가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에는 쿠팡 임직원 60여 명이 덕

평리 인근 마을을 찾아 분진 수거 등의 청소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현지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피해보상과 더불어 로켓배송의 편의까지 제공해 상호 발전적 관계를 다져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쿠팡은 지난 7월 경기도 이천시 덕평1리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및 전문 의료진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